

# 효율적인 학부제 운영 방안

김 형 철 / 연세대 철학과 교수, 교무처장

효율적인 학부제 운영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전공지도를 철저히 하고, 제한된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전공학생수의 상한선을 두며, 기초학문 전공자에게 장학금 지급을 확대하고, 학부 1, 2학년에는 기초학문 과목만 개설한다. 또한 기초-응용학문의 연계전공을 우선적으로 개발하고, 응용학문 분야의 대학원생 선발시 동계 진학률을 제한하여 타전공자, 특히 기초학문 전공자에게 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기초-응용학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꾀한다.

## 1. 학부제 : 취지와 목적

**학**부제 실시는 학생들의 전공자유선택권 행사를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대학 본연의 임무가 무엇인가부터 이해해야 한다. 대학은 수준 높은 전문 지식을 소유한 지성인과 건전한 의식과 가치관을 가진 공동체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다. 대학은 사회발전의 원동력을 자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창조적 사고를 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서 합리적 판단을 내리는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 오늘날 IMF 위기로 대표되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을 강구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 대학이 창의력 있는 인간을 제대로 양성해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순기능을 제대로 수행해 낼 수 없을 때, 대학은 그 존재가치를 스스로 상실하고 말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도 자연부존자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인적자원을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상대적으로

저개발 국가에 속해 있을 때에는 스스로 창조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간보다는 지시에 충실하게 복종하고 명령받은 대로 실행하는 수단만을 강구하는 인간이 더 필요했다. 그러나 암기 위주의 교육이 키워낸 인간이 순종형의 수동적 인간이었다면, 이제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창조적이고 능동적인 인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 온 것이다.

과거 학과별 모집제의 폐단을 반성해 보면, 왜 전공이 자율적으로 선택되어져야 하는지의 원인이 분석될 수 있다. 학과별 모집제는 학생을 선발하는 모집단위를 유사한 전공을 한 교수들로 구성된 학과로 고정시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신의 전공을 미리 결정해서 그 학과에 입학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즉, 어떤 대학교에 입학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대학 무슨 학과에 입학하는 것이다. 한 번 자신이 결정한 학과는 졸업 때까지, 아니 평생을 통해서 변경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다. 고등학생들이 대학에 입학하기 위하여 젊음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외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젊은 나이의 미숙함으로 인하여 자신의 적성과 전공을 정확하게 사전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학과별 모집제 하에서 학생들이 엉뚱한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했다. 어쩌면 자신의 전공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학생이 드물다고 말하는 것이 아마 더욱 정확한 표현일 정도로, 전공과 적성과의 괴리에서 우리 학생들은 고민하고, 또 괴로워했다. 이러한 상황을 지속시킨다는 것은 단순히 학생 개개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수요에 대학이 적응하지 못함으로써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경직된 학과별 모집제로 인하여 인력수급을 자율적으로 조정해야 하는 현대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은 제고될 수가 없다.

학부제의 특성으로는 교수중심에서 학생 중심의 교육을 수행하는 열린교육, 유사학과 통폐합, 특성 있는 교육체계,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 네 가지를 보다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열린교육을 지향한다. 학부제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과거 학과별 모집제의 폐쇄성과 편협성을 극복하고 대학을 열린교육의 장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대학이 열린교육의 장으로 변모함으로써 생기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① 과거 학과별 모집제에서 교수중심의 학사과정을 학생들이 피동적으로 이수했던 데 반해 학부제에서는 학생들에게 전공선택권이 주어지면서 학생중심의 학사과정이 마련되었다.

② 학부제 하에서는 학생들이 폭 넓은 전공 교육 기회를 통해 자신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③ 과거 학과별 모집제에서는 단일전공만 이수할 수 있었던 데 반해 학부제 하에서는 이중전공, 다중전공 등 다양한 학사 모형이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유사학과 통폐합을 추구한다. 과거 우리나라 대학들은 백화점식 학과설치에 따라 유사학과의 개설은 물론 대학원 전공 심화과정에서나 가능한 학과를 무분별하게 설치해 왔다. 이러한 학과 세분화의 결과 국제경쟁력 약화, 학과간 폐쇄적 운영에 따른 부작용 등이 심화되었다. 학부제는 유사학과의 통폐합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폭 넓은 교양인과 다양한 기초지식을

갖춘 다기능적 인력을 배출할 수 있다.

셋째, 특성 있는 교육체제를 구축한다. 과거 우리나라 대학들은 개설 학과 및 학생 수의 면에서 양적인 팽창만을 추구한 결과 유사 학과를 비슷한 규모로 개설하게 되었고, 그 교육내용도 사회적 요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관습적으로 과거의 것을 답습하여 하나의 유형으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학부제 하에서는 유동적인 학사과정에 의해 대학에 맞는 또는 전공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 있는 커리큘럼이 제공될 수 있다.

넷째, 교육의 질적 향상을 추구한다. 학과별 모집제도에서와는 달리 학과별 기초과목이나 전공필수과목 등을 통합된 학부 차원에서 개설하게 됨으로써 교수들의 강의부담을 줄일 수 있고 교수들의 학부과정 강의부담이 감소됨으로써 학부교육 내용이 충실해질 뿐만 아니라 대학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 또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되어 교수들의 연구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인접 학문간의 공동연구나 연구 그룹 등을 형성하여 다학문적 대단위 연구가 가능해진다. 즉, 학부제를 통해 대학교육 전반에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다.

## 2. 학부제와 학과

학부제의 취지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교수들의 자발적 협조와 동의에 기초한 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대학이 많지 않은 이유는, 취지에 걸맞지 않게 운영하려는 행태에 기인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개념적 구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은 데에도 있다.

학부제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학부, 학과, 전공, 모집단위의 개념을 차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학부제를 시행하는 데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은 학과와 모집단위의 구분이다. 학부제에서 모집단위가 광역화되는 경우에 학과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1998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등교육법시행령 제9조 제3항은 “대학의 교원은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시행령에서도 규정하듯이 학과란 교수의 소속을 지칭하는 것이고, 학생은 교수가 속한 학과에서 제공하는 전공을 공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학생이 학과에 속하지는 않는다. 학과와 모집단위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학생의 소속과 교수의 소속이 일치하므로 “철학과 교수”와 “철학과 학생”이라는 구분이 가능하였으나, 학부제에서는 철학과 교수와 인문학부 학생이 있을 뿐이며, 그 인문학부 학생이 철학을 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교수는 전공에 따라 학과에 소속해서 교육과정을 학생에게 제공하며, 학생은 다양한 모집단위에 소속하여 학생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 교육부의 「'99학년도 대학 학생 정원 조정 지침」에 의하면 학생과 교수의 소속 단위를 다르게 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교수는 전공의 정체성에 따라 학과 또는 학부에 소속하도록 하여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며, 학생은 꼭 학과 또는 학부와 같지 않은 별도의 모집단위에 -보통은 학과 또는 학부보다 광역화된 형태이겠지요-소속되어 다양한 학문·전공을 경험할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또는 교수들의 경우도 과거 학과제와 달리 유기적으로 다른 학문분야와 협력된 교육과정의 구성·제공을 가속화시켜

학문간, 학과간의 협조를 가능케 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정리하면 학과(department)는 동일한 전공분야의 교수들이 소속되는 집단으로 학문을 연구하는 전공 단위를 말하며, 모집단위는 학생 선발의 단위를 말하는 것이다. 한편 학과는 학문의 연계성, 유사성에 따라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에 소속된다. 또한 학부는 학부학생의 모집단위를 나타낸다. 뒤에서도 언급하겠지만, 학생의 전공선택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학부제의 근본 취지에 따라 학부의 모집단위는 대단위라고 대학원의 모집단위는 전공별로 세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학부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과<sup>1</sup> 행정의 중심을 대학에서 학과로 이전하여, 학과단위의 행정본권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행정본권화라 함은 교원 인사(채용·승진), 예산 등에 관한 자율권을 말한다. 학부제에 대한 개념적 이해는 그 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다.

학부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많은 교수들의 불안함은 학과규모(교수 수, 예산 등)를 결정하는 요소가 과거처럼 학부 전공학생의 숫자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학부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기 위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학과의 규모가 결정되어야 한다. 첫째, 학과소속 교수들의 평균 연구업적, 연구과제 수 및 연구비 수주액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학과의 규모가 교육적인 요소에만 집중되어 있을 때, 우리의 교육여건은 역설적으로 더욱 열악해질 수밖에 없다. 반면에 학과의 규모는 그 전공분야에서 연구관련 성과가 얼마나 뛰어난가가 반드시 고려대상에 들어가야 한다. 연구를 잘하지 못하는

학자가 훌륭한 교수가 되기 힘들다. 결국 교육의 질은 연구성과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연구성과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전년 대비로 연구업적 증가율에 각 학과 예산 증액율을 연동시키면 연구를 열심히 하게 될 것이다. 또 이렇게 연구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연구중심대학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대학들은 자체 내에 연구만을 전담하거나 치중하는 교수들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둘째, 해당 학과에서 개설한 과목의 수강 학생의 총 수를 계산하여 학과의 규모를 결정해야 한다. 과거에는 쉽게 학부전공 학생 숫자에만 기초하여 교수총원과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 학과별로 학생을 모집하는 것과 대학원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았던 것이 이러한 결정방식을 조장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대학원생의 규모도 상당히 증가되었고, 학부생도 전공학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전공이면서 수강하는 학생들의 숫자도 계산에 포함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학부비전공 수강생의 비중을 1로 놓을 때, 학부전공생을 2, 대학원생을 20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어떤 학과에 필요한 교수총원 숫자를 계산하는 방식에서, 대학원생의 비중을 학부생보다 10배 중시한다는 것이다. 이 가중치를 증가시킬수록 그 대학은 대학원 중심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반대일수록 학부 중심적인 비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대학원 진학률, 교수 취직률, 일반 사회 직장취직률 등과 같은 졸업생의 유관 분야 취업률을 감안함으로써 해당전공학과가 사회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해야 한다. 사회수요에 전혀 부응하지 못하

는 형태로 인력을 계속 배출하고 있는 학과는 증가규모가 억제되어야 하고, 반면에 이러한 수요를 적극적으로 충족시켜 나가는 학과는 계속 지원해야 할 것이다. 어떤 학과가 배출하는 인력이 학계에 진출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면 그 학과는 기초분야 학과로 간주되어야 하고, 사회전문인력 배출이 뚜렷하면 그 학과는 응용학문 분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응용학문 분야는 '기초 없이 육성될 수 없다.'는 확고한 인식을 갖는 것은 성공적인 학부제의 실천을 위하여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기초분야에 대한 지원이 대학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학과규모가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학부전공 학생 숫자를 채우기에 급급하는 일은 상당히 줄어들 것이고, 교수들의 학부제 반대도 명분을 갖기가 힘들어진다. 학과규모 결정이 교수들의 연구, 교육, 사회기여에 대한 종합적 평가에 기초하기 때문이다.

### 3. 기초-응용학문의 조화로운 발전

대학은 사회의 전문인력 수요만을 충족시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학문후속세대의 지속적 충원을 위해 기초학문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전공 자율선택권을 권장하는 학부제에서, 기초학문의 발전은 커녕 오히려 이를 고사시킨다면 이를 학부제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기초분야에 대한 지원은 대단위 모집단위를 원칙으로 하는 학부제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사안이다. 그렇다고 과거처럼 학과별 모

집제도를 기초분야에서 예외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 기초분야 보호라는 당위적인 목적이 학과별 모집제도에서는 번번이 악용되고 남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물론 일부 학생들 가운데 소신을 갖고 해당기초분야 전공을 어려서부터 결정하는 학생이 있기도 하지만, 대개는 그 대학을 쉽게 들어가려는 하나의 방편으로 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두말 할 것도 없이,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대학일수록 전공만족도가 떨어지는 이유는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최소한의 학력으로 합격하려는 학생들의 의도가 집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하겠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입학생을 별도로 확보하려는 조치 없이, 기초과학을 보호하는 방안을 우리는 마련해야 한다. 기초분야는 문학, 역사, 철학과 같이 학자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문분야를 말하고, 응용분야는 법학, 경영학, 의학과 같이 사회전문인력 양성을 주목적으로 하는 학문 분야를 말한다. 양자의 조화로운 발전은 학부제를 통한 전인적 교육에 필수적이다.

첫째, 학생들의 전공지도를 철두철미하게 하여야 한다. 자신의 적성과 그것에 맞는 전공분야에 대한 정보를 구하는 학생들에게 관련자료와 지도교수의 도움은 항상 열려 있어야 한다. 학생들은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되지만, 실제로 방황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과거 우리 교수들의 관심은 이미 전공이 결정된 학생들을 대하는 데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에 대한 진로지도가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제 졸업 때까지 자신의 전공을 결정해야 하는 학생들에게 전공적성지도와 진로지도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교수는 강의를 통해

서뿐만 아니라 개별상담을 실시하여 학생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볼 때 교수가 학생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학생들이 교수를 위하여 학교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다.

둘째, 한 대학 내의 제한된 교육여건을 감안하여 전공학생 수의 상한선을 둘 수 있다. 이는 얼핏보면 전공 자율선택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학생들에게는 자신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지만, 교수도 책임있는 교육을 위하여 자신이 가르칠 학생의 수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제한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에 어떤 교수가 500명의 학생을 책임있게 가르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교수의 뛰어난 역량을 나타내주는 좋은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가능성에 대하여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즉, 우수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이 처한 여건의 범위 내에서 전공 학생수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단, 여기서 지극히 조심해야 할 사항은 수강생 제한을 학과별로 일정한 시기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학과 과목별로 수강정원을 할당하는 방식으로 하여야, 학생들의 전공선택권이 졸업시까지 보장된다는 사실이다. 과거에 과목별이 아니라 학과별로 학생수를 제한하여서 실패한 경험을 되살려보면 이 점은 대단히 중요하다. 비인기전공 학생이 일종의 “돌 반”이미지에 시달리는 것과 같은 현상은 얼마든지 방지 가능한 일이다.

셋째, 기초학문 전공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을 확대해야 한다. 예를 들면 전체 장학금 가운데 약 80%를 기초분야 학생들에게

배정하는 것은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당연한 일이다. 학교가 응용분야 학생들에 장학금 대신 대출금을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한 이유는 응용분야 학생은 졸업하고 난 후에 많은 봉급을 받는 직장에 취직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기초분야 학생은 졸업후 직장을 갖더라도 학자 봉급의 열악한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장학금을 지원받지 않으면 안 된다. 학문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회는 결국 학자들로부터 엄청난 혜택의 결실을 거둘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기초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학부에 자율적인 학술동아리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이다. 학교는 학생들이 방황하고 고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술연구세미나를 활성화시켜서 일찍이 학문적 분위기에 젖도록 분위기를 형성해야 한다.

넷째, 학부 1~2학년 과정에는 기초학문 분야의 과목만 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용학문 분야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최소한의 전공기초 과목만 개설한다. 미국은 법학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대학원을 설립하여 전문법조인을 3년간의 엄격한 대학원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육성하고 있다. 그리고 학부과정에서는 법률에 대한 교양지식 정도로 한두 과목 정도만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같이 전문대학원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설되지 않은 곳에서 응용학문들이 학부교육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므로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초분야는 1~2학년 과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3~4학년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응용분야 학문에 대한 관심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의부

담이 적게 된다. 그러나 기초분야가 필요로 하는 전공인력이 어차피 소수정예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응용학문이 성숙한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기초분야 교육을 필수로 요구할 때, 대학은 그 본래의 임무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다.

다섯째, 기초-응용의 연계 전공을 우선적으로 개발한다. 연계전공의 중요성은 이중전공과 마찬가지로의 논리에서 인식되어야 한다. 외국에서 법학, 의학, 경영학과 같이 중요한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대학원을 설립하고, 학부에서 교육을 완전히 포기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실시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전문가에게 이중전공을 의무화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대학원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지 않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적어도 전문대학원이 활성화될 때까지는 기초-응용의 연계전공 개발이 시급한 것이다. 연계전공은 여러 개의 전공이 연계되어서 진행되는 것을 말한다. 옥스퍼드 대학의 PPE(Philosophy, Politics and Economics)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 예로서, 영국의 엘리트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지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폭넓은 지식들을 학습하고 있다. 연계전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전적으로 관장하는 조정자 역할을 하는 주임교수와 실무교수들이 필요하며, 학년간·학계간 그리고 전공간 긴밀한 협조와 조화가 필요하다. 반면에, 복합전공은 특수한 단일의 주제를 전공으로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환경학, 공해학, 인구학, 미국학, 중국학 등과 같이 기존의 학과들이 제공할 수 없는 틈새의 분야를 학생들의 필요와 요구에 따라서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어떤 종류의 복합전공을 설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각 대학이 선택할 문제로 복합전공에 따라 대학의 특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복합전공을 충실하게 실시하기 위해서는 교수들의 창의적 사고와 학교당국의 과감한 재정 투자가 전적으로 필요하다.

여섯째, 응용학문 분야의 대학원생 선발시 동계 진학률을 제한하여 타전공자(특히 기초학문 전공자)에게 문호를 개방한다. 이러한 조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학부와 석사를 합하여서 이중전공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경영대학원 진학자 중에서 학부 경영학 출신을 제한하게 되면, 경영학을 학부에서 가르치는 이유도 확실하게 정립되고,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이유도 분명하게 된다. 현재는 응용분야 대학원들이 학부에서 동일한 학문을 전공한 학생들을 선호하기 때문에, 학부에서 경영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것까지 봉쇄되기 때문에 학부를 졸업하고 난 후에 다시 경영학 학부전공으로 진출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상까지 발생하게 된다. 학사편입이라는 교육낭비적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응용대학원의 동계 진학률을 대폭 제한해야 한다. 어차피 응용대학원이 사회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곳이라면 학부 타전공자 출신에 대한 문호를 대폭 확대함으로써 그 본래 목적을 달성해야 할 것이다. 특히 동일대학 내에서 동계 진학할 때, 실질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배우게 됨으로써 교육적 효과가 급격히 하락하는 현상은 반드시 방지해야 한다.

#### 4. 결 론

학부제는 학생들에게 전공선택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경향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러한 학부제에 대한 부정적 요소와 오해를 최소화하는 것은 학부제 성패의 결정적 요인이다. 특히 오랜 기간 학과별 모집을 해온 대학들에서 학부제에 대해 보이는 알레르기적 반응은 진보적 사고를 생명으로 해야 하는 대학에서 대단히 불행한 일이다. 이러한 개혁을 주도하는 대학본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고, 특히 최고경영자로서의 총장의 의지는 실제로 학부제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혁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개혁에는 원칙의 정립과 그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 명확한 입장을 총장이 이해하고 집행해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만약 총장이 개혁을 집행하다가 명분없는 타협을 한다면, 아무도 그러한 총장을 신뢰하면서 어려운 결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원칙에 따른 개혁을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이러한 학부제 프로그램의 개혁은 다음과 같은 2가지 원칙을 갖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학부생 모집단위를 최대한으로 광역화함으로써 우수학생 선발의 기틀을 마련한다. 둘째, 기초학문과 응용학문의 조화로운 발전을 모색한다. 이 두 원칙의 핵심은 학생의 전공선택 자율권의 최대한 보장과 균형있는 학문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충족되지 않는 곳에서 건실한 대학발전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모든 대학에서 모든 전공이 다 존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대학구성원의 자발적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질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는 개혁에 있어서 원칙의 제시만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자발적 동의와 참여

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

대학교육은 결국 학생과 교수의 수업에 통한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의 질적 우수성은 커리큘럼과 실러버스의 충실화에서 확보되는 것이다. 수월성 확보 노력은 수업의 충실화를 위한 연구업적과 교육기법의 향상, 교수들의 성실한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 부 록 /

아래 부록의 내용은 미국의 대표적 대학인 하버드 대학이 어떠한 학부제 프로그램을 갖고 운영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또 국내의 대학 가운데에서도 훌륭하게 학부제를 수행해나가고 있는 대학들의 프로그램을 열거하였으니, 좋은 참고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실었다. (필자 주)

하버드 대학의 교육과정

1. 하버드 대학의 학점배분 기본형

부 문	과목 수	학 점
핵심 교과목	8	24
전 공	16	48
자유선택 또는 부전공	8	24
소 계	32	96
학교에서의 개인별 세미나		30
합 계		126

2. 하버드 대학의 교육과정 개혁과 현행 교육과정

(1) 1970년대 교육과정 개혁

하버드 대학은 196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초에 걸쳐 베트남 전쟁 반대·청소년문



화의 품미 등으로 학생들의 기존체제에 대한 비판과 도전의 움직임이 왕성해짐과 동시에, 규정된 학칙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수정 요구에 의해 학생들의 자유를 확대시켜 주었다. 그러나 곧 이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하자 하버드 대학은 자유와 질서를 조화시킨 교육과정 개혁을 시행하였다.

개혁안이 목표로 하는 인간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받은 사람은 명료하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생각하고 쓸 수 있어야 한다.

둘째, 교육받은 사람은 자기 분야의 지식에 정통해야 한다. 한 분야의 학습을 쌓아가는 것은 추론이나 분석의 능력을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이는 학생에게 일차적인 전공의 역할이다.

셋째, 교육받은 사람은 우리를 둘러싼 우주 만물과 사회 및 우리 자신에 관한 지식과 이해를 얻고 응용하는 방법에 비판적인 인식력을 가져야 한다. ①문학과 예술의 심미적·지적 체험, ②오늘의 문제를 이해하는 양식 및 인간사의 과정으로서의 역사, ③현대 사회과학의 개념 및 분석기술, ④자연과학의 수리적, 실험적 방법 등에 관하여 폭 넓은 지식을 가져야 하는 것이다.

넷째, 교육받은 사람은 ⑤도덕적, 윤리적 문제에 관한 상당한 수준의 이해와 사고의 경험을 가질 것이 기대된다. 교육받은 사람의 가장 중요한 자격이 도덕적 선택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충분한 판단력에 있음은 당연하다.

다섯째, 오늘의 교육받은 미국인은 ⑥다른 문화와 시대에 관하여 무지하고 편협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넓은 세계를 무시하고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이상 제시한 다섯 목표 중 첫째는 의무적인 작문 능력의 훈련과 전체 교육과정을 통하여 추구하게 되며, 둘째 목표는 전공과정

에 집중함으로써 달성을 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넷째, 다섯째 목표를 위해서 「핵심교육과정」을 신설하였다.

## (2) 핵심교육과정

(i) 「문학과 예술」Literature and Arts 영역은, 세상에서 경험된 것들이 어떻게 언어, 청각, 시각 등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비판적으로 이해할 능력을 배양하려고 한다. 이 영역은 다시 세 분야 즉, 문학, 미술과 음악, 문화의 연관 항목으로 나뉜다.

(ii) 「역사학」Historical Study는 둘로 나누어, A분야에서는 현 세계에서 주요한 현상에 대한 배경과 발전을 살펴보고, B분야에서는 시대를 규정짓는 과거역사의 복잡성을 구체적으로 검토, 분석하는 훈련을 쌓도록 한다.

(iii) 「사회분석」Social Analysis 영역에서는 사회과학의 중심개념과 방법을 파악하게 하고, 이러한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이 현대 사회에서의 인간 행동에 관한 이해를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를 배우도록 한다.

(iv) 「자연과학」Science 영역은 인간과 세계를 관찰하는 방식으로서의 보편적 과학의 이해를 도우려는 것이다. 이는 다시 자연현상을 연역적, 계량적으로 파악하는 물리학 분야와, 복잡한 자연계를 기술적으로 설명하거나 역사적, 진화적으로 다루는 생물학, 지구과학 분야로 나뉜다.

(v) 「도덕적 근거」Moral Reasoning 영역은 합리적인 도덕적, 정치적 선택의 방법을 탐구하고 그 선택의 기초가 되는 규범적 의식을 체득하게 하는 교과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vi) 「외국문화」Foreign Cultures 영역은 학생의 문화적 경험의 범위를 확대하고, 학생

자신의 문화적 배경과 전통에 대해 폭 넓은 전망을 할 수 있도록 비서구권에도 많은 비중을 두었다.

### (3) 비학제교육

(Non-Departmental Instruction)

#### (i) 신입생 세미나 프로그램

(Freshman Seminar Program)

신입생 세미나 프로그램은 갓 입학한 학생들에게 교수 멤버(members of the faculty)들과 다양한 선별된 주제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함께 가까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학생들은 자신이 뛰어들 전공의 교수에게 자유로운 형식의 세미나를 통해 많은 것을 얻고 있다.

#### (ii) 학료 세미나 프로그램

(House Seminar Program)

학료 세미나는 학생들에게 그들이 보통 겪어보지 못한 경험들을 자신의 영역의 전문가와 함께 소수 정예의 세미나를 통하여 제공하고 있다. 학료 세미나는 정규 학제 프로그램과 경쟁해서는 안 되고 강의 카탈로그에 오른 강의를 따라해서도 안 된다. 하버드 대학 기숙사마다 이러한 세미나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 (iii) 일반 교육 (General Education)

### 교수 개발 (Faculty Development)

#### (1) 교수개발에 대한 일반적 노력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대학 내에서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운영할 뿐만 아니라 대학간의 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대학 관련 기관에서는 요원개발 프로그램만을 전담하는 기구나 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대학에서의 연구와 교수의 질을 향

상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에서는 대개 HRD(Human Resource Development)와 SD(Staff Development)를 혼용하여 쓸 정도로 보편화되어 정착되어 있고 유럽의 경우에도 DP(Development Plans) 즉, 대학개발계획의 일환으로서 대학 중심의 요원개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 (2) 미국 대학들의 요원개발 프로그램의 목적

- (i) 대학교직원으로서의 직업에 대한 가치 부여
- (ii) 대학교직원의 직업 수행과정에서의 긍정적인 자세 확립
- (iii) 대학이 지원하는 학습체제로서 교수들의 전 학습과 직업경험, 그리고 조직적 지원에 의한 교육프로그램에 의한 재조직
- (iv) 수업기법의 변화에 따른 재교육과 자기개발의 욕구 충족
- (v) 학습자와의 효율적인 학습관계 정립에 필요한 재교육
- (vi) 커리큘럼의 다양화에 부응하는 교과내용의 이해 증진
- (vii) 교육목표 설정-교수기법 개발-교육평가의 재구성에 대한 기법
- (viii) 사회 변화에 따른 교수기능의 이해에 관한 사항
- (ix) 학생의 진로지도에 관한 이해 증진
- (x) 교수개발 전반에 관한 사항(교수의 역할과 기능, 교수의 생애 설계 등)

#### (3) 미국 연구중심대학의 교수개발

연구중심대학은 일반적으로 상위 그룹의 대학 중심으로 분류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대학의 교수개발은 교수(teaching oriented)에 치중되어 있기보다는 연구개발과 관

련된 경우가 많다.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연구개발부(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에 의해 교수개발이 이루어지는 경우와, 단과대학 단위의 교수개발센터(faculty development)에 의해 주도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4) tri-state 교수개발 프로그램

tri-state 교수개발 프로그램은 인접 3개 주간의 몇몇 대학이 교수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는 예이다. 현재 미국의 미조리주, 일리노이주, 캔사스주에 있는 대학들간에 협력 체제가 운영되고 있는데 미조리대학과 남일리노이대학의 신문방송학과 연계 프로그램, 남일리노이대학과 미조리대학의 사범대 교수개발 프로그램, 사우스이스턴 미조리대학과 남일리노이대학 교수법 개발 프로그램, 캔사스대학-일리노이대학-남일리노이대학-미조리대학의 교수개발 벨트(faculty development-belt program) 프로그램과 워크숍 프로그램 등이 이러한 예이다.

### 국내 대학의 우수 학부제 교육프로그램

#### 1. 학생지도 부문

##### (i) 한동대학교- 담임교수제

: 다른 학교의 지도교수제와는 다른 보다 적극적인 지도 형태. 교수 1인과 학생 25명으로 인성 교육의 기본 단위인 팀을 구성, 담임교수와 팀원이 정기모임, 가정초대 등 인격적 만남을 통해 상담 지도. 또한 담임교수의 지도 아래 매주 채플, 근로의무, 사회봉사 등 공동체 훈련 실시.

##### (ii) 한동대학교- 명예제도

: 명예위원 선정 및 명예위원회 운영, 재학생을 대상으로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인 HanST를 매년 가을학기 초에 실시.

##### (iii) 강릉대학교- 종합 학생 지도 대책

: 오리엔테이션의 기능 강화와 세분화, 학생생활연구소 기능의 활성화, 학생지도교수제의 다양화를 통해 종합적 학생 지도 체제 구축.

##### (iv) 아주대학교- Adviser System

: 학생들이 아주서비스센터 및 각 건물에 설치된 Touch Screen을 이용하여 교수 및 학사 정보를 열람한 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지도교수를 선정, 상담을 예약한 후 지도교수를 방문하여 상담지도를 받음.

##### (v) 아주대학교- "대학생활과 진로" 과목 신설

: 학부제 실시 이후 학생지도를 위해 "대학생활과 진로"라는 과목을 교양필수와 과목으로 이수 의무화. 상세한 전공소개, 대학생활 안내, 교양특강 등의 형태로 진행.

##### (vi) 동국대학교- 학업이수 가이드 제공

: 학부제 실시 이후 학생의 전공선택 지도를 위해 교육과정의 체계, 교육과정별 최저이수학점, 교양교육과정, 전공 최저이수학점 등의 정보를 제공, 학생들의 전공선택에 도움을 줌.

##### (vii) 서강대학교- 평생지도교수제

: 학부제로 입학한 학생이 전공1을 선택하면 전공1별로 평생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인간적·학문적 유대 강화를 목적으로 전공 지도는 물론 장학, 진로문제, 개인신상, 대학생활에의 전반적인 적응을 지도하며, 졸업 후 결혼, 직장 등의 인생문제에 대해 계속 상담 지도함.

##### \* 미국 버클리 대학교- 명예교수세미나

: 은퇴한 교수가 1, 2학년생 15~20명

과 함께 자기의 전공을 넘어, 살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학제적 성격의 세미나를 운영, 학점 배당도 1학점에 불과하고 성적도 Pass/Fail로 매김.

## 2. 교육과정 부문

### (i) 서강대학교- 연계전공 시행

: 학생에게 전공선택자유권을 제공하고 사회의 수요와 다양한 학생 욕구에 부합하는 전공을 개발하기 위해 “연계전공과정 연구개발위원회”를 두어 다양한 연계전공 모델을 개발.

### (ii) 서강대학교-학생디자인전공제

(Self-Designed Major Program)

: 학생디자인전공제는 전공 프로그램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전공이 없을 때 학생이 여러 가지 전공에서 스스로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학교의 인정을 받은 후 과정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운영.

### (iii) 한림대학교- 주제중심 교육

: 특정 주제에 대해 학생과 교수가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주제중심 교양교육을 개발, 실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고 학제간 및 실천적 접근을 강조하며 학생의 능동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임.

### (iv) 한림대학교- 기숙사 교육

: 기숙사 입사생 중 신입생을 대상으로 4개의 신규 강좌를 개발, 운영 중. 2001년부터는 신입생 전원을 기숙사에 입사시켜 기숙사 교육을 이수하게 할 계획임.

### (v) 서울여대- 토론중심강좌 (Honor Class)

: 우수학생들을 대상으로 토론식 교육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학생들의 논리적 사고 및 표현 능력을 길러줄 수 있는 기회 제공.

### (vi) 서울여대- 융합전공

: 다양화, 복잡화되는 21세기 사회에 부합되는 종합적 교육과정을 제시하고 다양한 전공영역을 제공하기 위해 시행될 서울여대만의 전공과정.

### (vii) 강릉대학교- 전공다양화를 위한 교육과정 모형

### (viii) 아주대학교- Honor Class

: 교육의 수월성 제고를 위해 시험을 통해 선발된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와 수학을 honor class 형식으로 운영. 성적에 따라 매학기 재구성하여 학습의욕 고취.

### (ix) 아주대학교- Tutor 제도

: 학업성취도가 낮은 학생들을 위해 기초과목 및 일부 전공과목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특별학습지도 프로그램. 우수 대학원생을 Tutor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개인교습을 담당케 함. ▲

---

김형철/78년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하고, '88년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윤리학을 전공하여 철학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연세대학교 철학과 부교수로 재직 중이며, 철학연구소 소장과 철학과 학과장을 겸임하고 있고, 한국철학회의 국제교류이사를 맡고 있다. 연구관심 분야는 규범윤리학(사회정의론, 공리주의, 자유주의), 응용윤리학(기업 윤리, 의료윤리, 환경윤리, 직업 윤리) 등이다. 저서로 『한국사회의 도덕개혁』이 있고, 역서로 『자유론』, 『이 모든 것의 철학적 의미는?』, 『합의 도덕론』, 『환경윤리학』이 있다. 논문으로는 “정보사회의 윤리”, “밀의 공리주의” 외 다수가 있다.